

담배에 대한 문제

지금 한국에서도 담배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여성도 매우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가, 피울 수 없는가가 중요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공공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서 약간의 제약을 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성은 지붕이 있는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있지만 남성은 어디에서나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여성보다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도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여성은 이런 제한이 남성 우월주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발하기도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남녀차별 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몇 세기에 걸쳐 하나의 관습처럼 된 인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 연기를 싫어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도 옆에서 간접 흡연을 한 사람이 받는 영향이 더 크기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부터 학교안의 강의실 등의 공공장소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학교 안에 흡연실을 마련해 꼭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워야합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올바른 권리를 찾는다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흡연실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